

환 예수님께서 예비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

예비신자 입교식: 3월 3일(주일) 교중 미사 중

전례 및 성사

첫 고해성사
 - 일시: 2월 10일(주일) 교중 미사 후
 - 대상: 2018년 12월 22일 세례자
 - 안내장소: 마태오방 8시 30분

유아세례 신청
 - 접수마감: 2월 10일(주일) 사무실 접수
 - 부모면담: 2월 11일(월) - 2월 15일(금) 화요일 제외
 - 1차 부모교육: 2월 20일(수) 오후 8시 미카엘방 (사무실 옆)
 - 세례 예정일: 3월 30일(토) 오후 1시

병자 영성체
 - 날짜: 2월 13일(수)

성지가지 수거
 - 접수마감: 2월 17일(주일) 부터

첫 영성체 신청
 - 대상: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 접수 마감: 2월 24일(주일) 까지
 *** 접수기간 안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

주일학교 및 청년

청년 2019-1학기 성서모임 그룹원/봉사자 모집
 - 모집기간: 2월 17일(주일) 까지
 - 접수방법: 청년 미사 후 성당 입구
 - 오리엔테이션: 2월 23일(토) 청년 미사 후
 - 문의: 최지혜 프리셀라 (0431 090 501)

아미쿠스 기금마련 옷 판매
 - 날짜: 2월 16일(토) 부터 오후 3시 - 오후 6시 매주 토요일
 - 사이즈: 초등학생
 - 장소: 교육관 주차장

사목회 및 교육모임

2019년 상반기 혼인강좌 안내
 - 일시: 2019년 2월 10일(주일) 오후 12시 - 오후 6시
 - 대상: 2019년 2월-2019년 8월에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부부
 - 장소: 가브리엘방 (변경시 개별 연락)
 - 문의사항: 김 훈 길버트 0428 866 317로 문의 바랍니다.

은빛대학 개강
 - 날짜: 2월 14일(목)

사목회의
 - 일시: 2월 17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알림 및 협조

단체모임
 - 2월 10일(주일) 쌍두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독서단
 - 2월 16일(토) 꾸리아, 헌화회
 - 2월 17일(주일) 글로리아, 홀리패밀리
 - 2월 21일(목) 청소년 분과
 - 2월 23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2월 24일(주일) 카나소공동체

은빛대학 기금마련 떡판매
 - 날짜: 2월 10일(주일)
 - 장소: 교육관 주차장

시드니 한인 가톨릭 골프회 2월 월례모임
 - 일시: 2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Cabramatta Golf Club
 (Corner Cabramatta Rd West & Cumberland Hwy Cabramatta)
 - 회비: \$50(카드 포함) 음료수와 간식은 개인적으로 준비
 - 신청문의: 총무 이선배 안토니오 0402 104 064
 부회장 최수자 소피아 0414 328 699
 *** 인원 파악관계 참석 여부를 꼭 알려주세요. ***

곽승룡 비오 주임신부님 서품 30주년
 - 날짜: 2월 13일(수)
 ***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건축위원회 미팅
 - 일시: 2월 16일(토) 오후 4시 30분
 - 장소: 라파엘방

필로메나 수녀님, 오메르 수녀님 송별식
 - 일시: 2월 17일(주일) 교중 미사 중

다문화 미사 안내
 - 일시: 2월 17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St Mary's Cathedral, Sydney
 - 다문화 예술제: 오후 3시 30분 - 오후 5시
 *** 각국 대표 성가대 출연 (본당 글로리아 성가대) ***

9구역 야유회
 - 일시: 2월 17일(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Deakin Park (Beaconsfield St) Silverwater

다음 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2월 17일) 주선규 프란치스코, 서용호 마태오, 이세영 안드레아, 김형주 안토니오, 리차드 요셉, 김병국 요한 형제님
 -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주일 봉사 | ■ 10/2 9구역 ■ 17, 24/2 10구역 ■ 3, 10/3 11구역 ■ 17, 24/3 12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 회 뒤 밥 성모회 | | | | | | | | |
|------------|--|--|--------|-----|----|--------|------------|-------------|-----|-------|
| 사무실 업무시간 | 수, 목: 09:00 - 15:00 / 18:30 - 20:30 금: 09:00 - 15:00 토: 09:00 - 13:00 / 16: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 <table border="1"> <tr> <th>봉헌금</th> <th>교무금</th> <th>기타</th> <th>미사 참례수</th> </tr> <tr> <td>\$2,089.90</td> <td>\$21,037.75</td> <td>\$-</td> <td>1,874</td> </tr> </table> | 봉헌금 | 교무금 | 기타 | 미사 참례수 | \$2,089.90 | \$21,037.75 | \$- | 1,874 |
| 봉헌금 | 교무금 | 기타 | 미사 참례수 | | | | | | | |
| \$2,089.90 | \$21,037.75 | \$- | 1,874 | | | | | | | |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곽승룡 비오 신부), 8756 3331 (김경수 바오로 신부), 8756 3332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 9558 3498 (홍 야고보 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 필로메나 원장수녀, 김 켈마 수녀, 남 오메르 수녀) 연례회 0408 123 173 (남순현 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 스테파노)

시드니 한인 가톨릭 주보

주임신부: 곽승룡 비오
 보좌신부: 김경수 바오로, 김재준 알베르토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이경화 필로메나, 김영애 켈마, 남키이 오메르
 사목회장: 이성복 요셉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사목지표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

- 월요일 7:30 pm
- 화요일 7:00 am
- 수, 목, 금요일 9:30 am
- 토요일 7:30 pm
- 토요일 9:30 am (매주)
- 4:00 pm (초등부)
- 5:30 pm (중고등부)
- 7:30 pm (청년부)
- 주일 6:30 am
- 8:30 am
- 10:30 am (교중)
- 5:00 pm (영어)
- 7:30 pm
- 시티 5:00 pm (주일)
-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공유



사진: 김옥순 수녀님 성화 - 나를 따르라

공유를 영어로 share라 한다. 나누어 갖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거나 함께 나눌 것을 소수로 제한할 때는 '자격'이라는 ability가 공유라는 말을 대신하게 된다. 누구나 환영이여야 할 welcome이 선발이라는 chosen man으로 그 뜻이 변하듯이...

우리 교회는 항상 share와 welcome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성당의 십자가에 홀로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에서 안아주시러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라는 말처럼 들린다. 손과 발이 각각의 지체라서 손이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순환(circulation)이 없이는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원리라도 같을 것이다. 우리의 몸속에서 흐르는 물과 피가 손까지만 순환되고 발에는 돌지 않으면 발도 썩지만 나중에는 손도 썩고 만다. 혼자서 소유하는 것과 '함께' 공유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성당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봉사에 원하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참여하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 지체들이 함께 협력하며 하나가 될 때 튼튼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동체는 한 몸으로서 서로의 지체들이 공유하도록 순환하는 탄력 곧 사랑을 원한다. 예를 든다면 음식을 나누는 밥 봉사와 말씀을 나누는 독서단도 하느님 백성이 원하는 사랑의 봉사로 순환이 되면 좋을 듯싶다.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가면 세상은 일상에서 자격과 능력을 철저히 원한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일까? 교회에서는 원하는 모든 교우들 각자가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봉헌하면 좋겠다. 하지만 봉사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봉사할 수 없어 갈 곳이 없어지는 마음이 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십여 년 성당을 다니는 동안 많은 친구들이 성당을 떠나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많았고 내 나이의 친구들도 있었다. 차라리 그들이 성당의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갈 곳 없이 헤매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성당의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밥 봉사처럼 문이 넓지 못한 것은 왜일까? 내가 봉사해서 좋으면 너도 함께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아닐까. 99마리의 양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길 잃고 죽음을 골짜기를 헤매던 한 마리 되찾은 양이 하느님 대전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다. 이젠 그렇게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로 성당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7구역 1번 이 복선 요세피나

⊕ 전례성가 / 화답송

전례성가: 입당: 44 봉헌: 217, 221 성체: 154, 160 파견: 450

제 1독서: 이사 6,1-2 7.3-8 제 2독서: 1코린 15,1-11 복음: 루카 5,1-11

화답송: 주님 - 천 - 사 - 들 - 앞 - 에서 - 찬 - 미 - 노래 - 부르 - 나 - 이 - 다

복사단 졸업식



3일(주일) 교중 미사 중 7명 복사들의 졸업식이 있었다.

받아들이는 예식



3일(주일) 교중 미사 중 예비 신자들의 받아들이는 예식이 거행되었다. 미사 후 12시 30분부터 가브리엘방에서 구역장, 반장, 대부모와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설 합동 위령 미사



5일(화) 오전 9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미사에 우리 교구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조상님들과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가 봉헌되었다. 미사 후 간소한 떡을 나누며 설날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알베르토 신부님의 교리상식 - 천주교인의 조상 제사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돌아가신 영혼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특별히 기일이나 설, 추석때에 지내게 됩니다. 제사(祭祀) 혹은 제례(祭禮)는 신령이나 죽은 이의 넋에 제물이나 음식을 바쳐 정성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그 가운데 설날이나 추석 때 드리는 제사를 차례(茶禮)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바치지만, 예전에는 차(茶)를 바쳤던 것에서 유래를 하여 '차례'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천주교 신앙인들도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나 차례를 지낼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경행위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천주교회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1790년 충남 진산에서는 윤지충 바오로는 제사를 금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주(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그의 영혼을 대신한다는 상징성을 갖는 종이나 나무 조각)를 태워버립니다. 그 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사를 천주교 식으로 지내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윤지충 바오로는 한국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조상 제사가 문제가 된 것은 제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16세기 중국에는 여러 수도회가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회 회원들은 유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천주교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조상 제사를 조상에게 예의를 갖추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반면 프란치스코회나 도미니코회 선교사들은 조상께 드리는 제사를 미신 행위로 보았습니다. 계속되던 제사 논쟁은 교황 클레멘스 11세와 교황 베네딕토 14세의 교황령으로 마무리 됩니다. 두 교황은 조상 제사를 미신행위로 보고 엄하게 금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물론 시신에 절을 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시각이 바뀐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가 조상 제사에 대해서 넓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조상제사가 미신이나 우상숭배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풍속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도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영혼을 불러들이는 축문을 읽거나 조상의 혼령이 음식을 드신다고 믿거나, 그 동안 병풍이나 문으로 가리는 행위(합문)등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위패에 '신위'라는 글씨도 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신(神)은 한 분 하느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제사 예식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천주교 제사 예식: http://www.cpbk.co.kr/bbs/bbs_read.asp?bid=13008538&board_id=k7120)

설날을 맞이해서 조상들을 위해 기도 드리고, 조상들께 우리를 위한 기도를 청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글 참고: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http://www.cpbk.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222650&path=200709

다해 연중 제5주일 / 루카 5,1-11 (2월)

질문

주제어: 하느님의 부르심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5)
▶ 내가 주님 말씀대로 실행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8)
▶ 주님이 나를 봉사자로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10)
▶ 주님은 평범한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나에게 큰일을 맡기신다면 어떻게 응답하고 싶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11)
▶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외 성경구절
위 성경구절 외에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 혹은 느낌은 무엇입니까?)

2월 활동도의 (제시문)

※ 1년 활동 계획 세우기 점검
계획 세웠던 1년의 활동들 가운데 잘 되는 것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본당의 사목자들과 수도자들에게 신앙생활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소공동체 반모임



1월 12일(토) 6 구역 1반, 2반, 3반 반모임

미등록 교무금 봉투

- 아래 교무금 봉투번호를 사용하시는 교우분들은 교무금 신탁 신청서 제출 여부를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10 | 303 | 539 | 824 | 994 | 1277 | 1743 | 2263 |
| 32 | 335 | 564 | 873 | 1010 | 1289 | 1757 | 2283 |
| 33 | 383 | 598 | 880 | 1013 | 1293 | 1773 | 2284 |
| 69 | 410 | 633 | 882 | 1031 | 1296 | 1774 | 2325 |
| 71 | 416 | 649 | 902 | 1047 | 1297 | 1796 | 2410 |
| 74 | 417 | 680 | 908 | 1048 | 1298 | 1805 | 2411 |
| 78 | 428 | 701 | 909 | 1049 | 1577 | 1815 | 2426 |
| 79 | 448 | 702 | 910 | 1050 | 1598 | 1826 | 2664 |
| 144 | 455 | 703 | 932 | 1065 | 1650 | 1834 | 2682 |
| 189 | 456 | 704 | 935 | 1066 | 1651 | 1838 | |
| 212 | 479 | 712 | 936 | 1095 | 1652 | 1843 | |
| 240 | 498 | 713 | 937 | 1185 | 1655 | 1844 | |
| 242 | 499 | 715 | 938 | 1186 | 1684 | 1849 | |
| 265 | 530 | 716 | 976 | 1196 | 1685 | 1854 | |
| 275 | 537 | 717 | 988 | 1225 | 1716 | 2171 | |
| 289 | 538 | 758 | 993 | 1228 | 1719 | 2209 | |

좋은책 - 마음을 씻고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



이 책은 강의로 시작해 글로 탄생됐다. 먼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2009년 평화방송 TV에서 강의한 내용을 이 책의 5장에 실었다. 고해성사는 루카복음 15장의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한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초대장이다. 이 책이 그동안 죄 중심으로 고해성사를 본 사람들, 곧 미사에 빠지고 사람을 미워하던 정도의 죄에 머물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영적인 위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고해성사가 되고,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영혼 동반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원한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험담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험담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중단시켜야 합니다." (2018년 8월 12일 삼중기도 프란치스코 교황).

사랑은 성찰과 식별이 향해가는 목적지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선물을 받는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위한 성찰과 식별은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는 수련이시다. 이 책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지은이: 광승룡 비오 신부, 출판: 기쁜소식
출처: Interpark.com

동서유통 한국 택배 전문 업체
* 호주산 소고기 선물세트 · 와인
* 경조사용 꽃바구니 · 와인 · 케익
9750 2694 / 0425 213 503 dongseoyutong

시드니부동산 Sydney Nationwide Realty
Shop 207, 62-80 Rowe St Eastwood (알디 센터 내)
정현배 (보나 벤투라) 0410 546 506
김진웅 (야고보) 0416 000 534

부업가구 · 일반가구 · 인테리어 · 주문제작공장 직영!
TOTAL KITCHEN
MOBILE: 0414.654.077 PHONE: 02.9737.9033
E-MAIL ADDRESS: TOTAL.KITCHEN@HOTMAIL.COM
ADDRESS: 67-69 DERBY ST SILVERWATER

D&Y 미니 포크레인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 가능
Footing / Trench / Auger / Post hole / Hammer
평탄작업 / Grass & Stumps 제거 / Tree Planting
0413 389 357

웨스트라이드 바이오포톤
PDP 생육광선
등 사우나 \$35
부랑: 9am - 7pm, 7 days
02 - 9157 2121
0452-347-365
0412-553-891

Cafe Carnarvon 카페 & 레스토랑
Open 7 days
Mon - Fri 6am - 2pm, 5pm - 9pm
Weekends 8am - 2pm, 5pm - 9pm
52 Carnarvon St, Silverwater
0433 085 653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시드니 전지역 판매
크리스토퍼 조항민 0418 206 007 (7days)
사무실: Lidcombe / Seven Hills

Miracle Finance
주택용자 · 재용자 · 상업건물 용자
고준서 0408 815 816
austarko@hotmail.com

지문을 알면 미래가 보이고, 성격을 알면 교육이 보인다!
MIRACLE MAKER EDUCATION CONSULTANCY
대표 최보사 0426-908-282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한진운송
최다차량 보유 8대
국내/해외 전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RUHENS 루헨스
직수 직수 직수
직수형 정수기
https://youtu.be/gcxxxPPuQV8
다이아몬드 거산 정수기
M 0416 1004 99 T 9643 9999

McGrath
James Jin 제임스 진
Lidcombe Real Estate Agents
0404 071 060
jamesjin@mcgrath.com.au

HANSUNG 한성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이한승
시드니 대학교 상대 졸업 (회계학과)
0403 737 487 / info@hansung.com.au

시드니 전지역 판매 임대 및 관리
BETTER REALTY
Harry Park
0419 030 826
좋은부동산

유학 이민 MKL SYDNEY
학교 상담
비자 상담
T. 0420 200 303 MKLSydney

AIR CONDITIONING AND ELECTRICAL Contractor Licence No. 254766C
JUSTIN COOL
폭염! 시원한 전문가 에어컨 모든 전기 소방설비
친절한 무료상담 / 오만경험 / 책임수공 / 착한가격 0411 169 320